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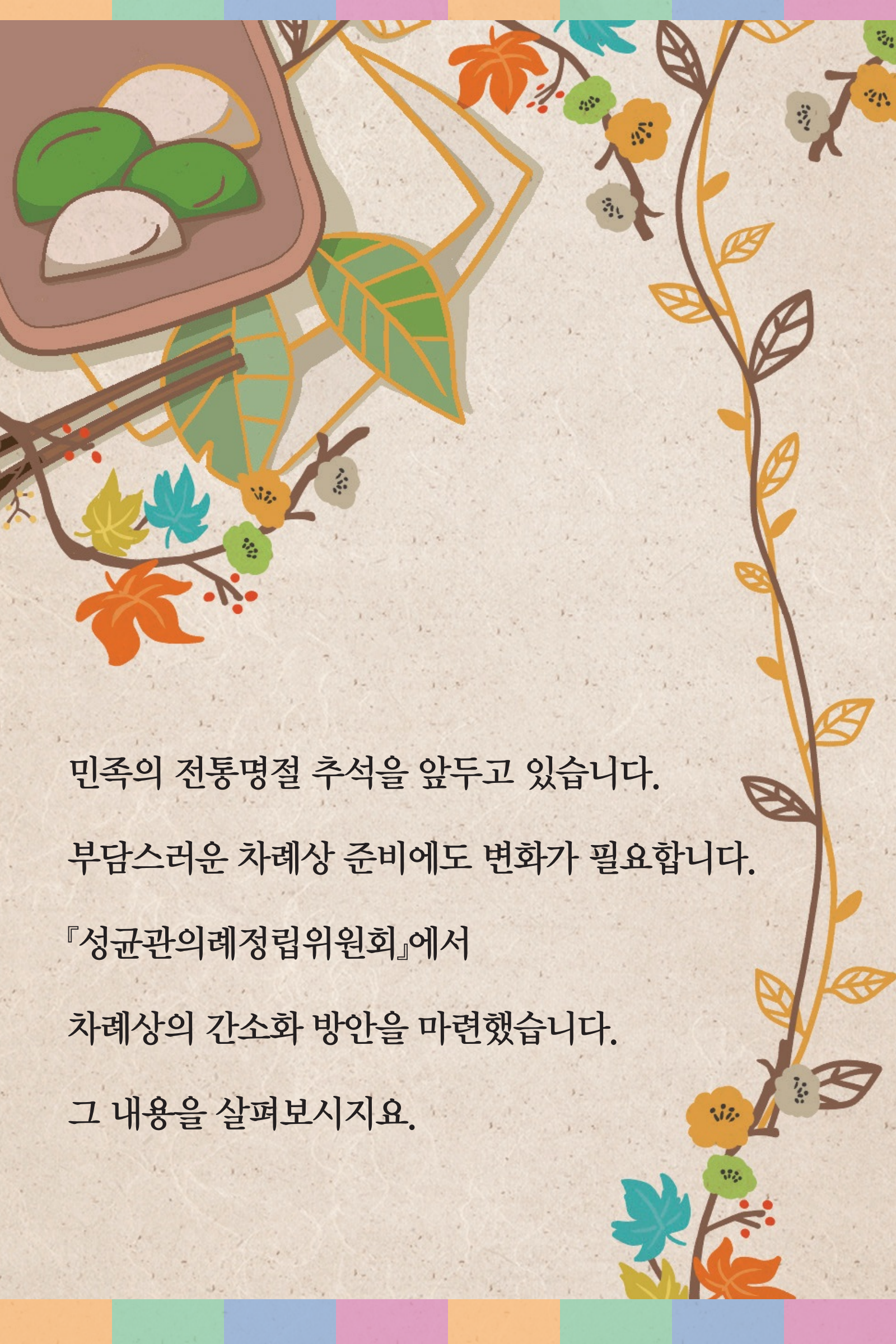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
추석 차례상 차리기



成均館
SUNG KYUN KWAN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민족의 전통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차례상 준비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에서

차례상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지요.

Q

차례를 지낼 때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간소화

40.7

정성

19.1

남녀 공동참여

19.0

전통을 지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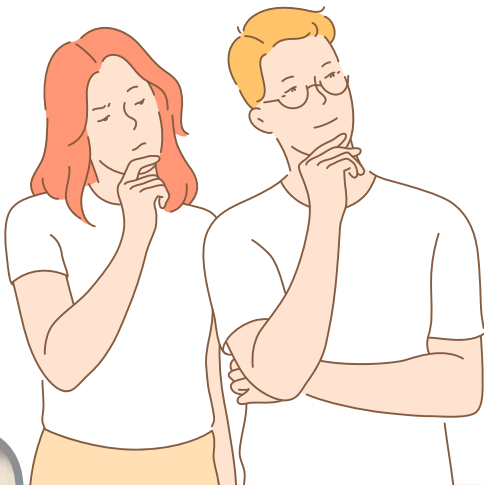
9.0

차례에 직접 참여

3.7

모름/기타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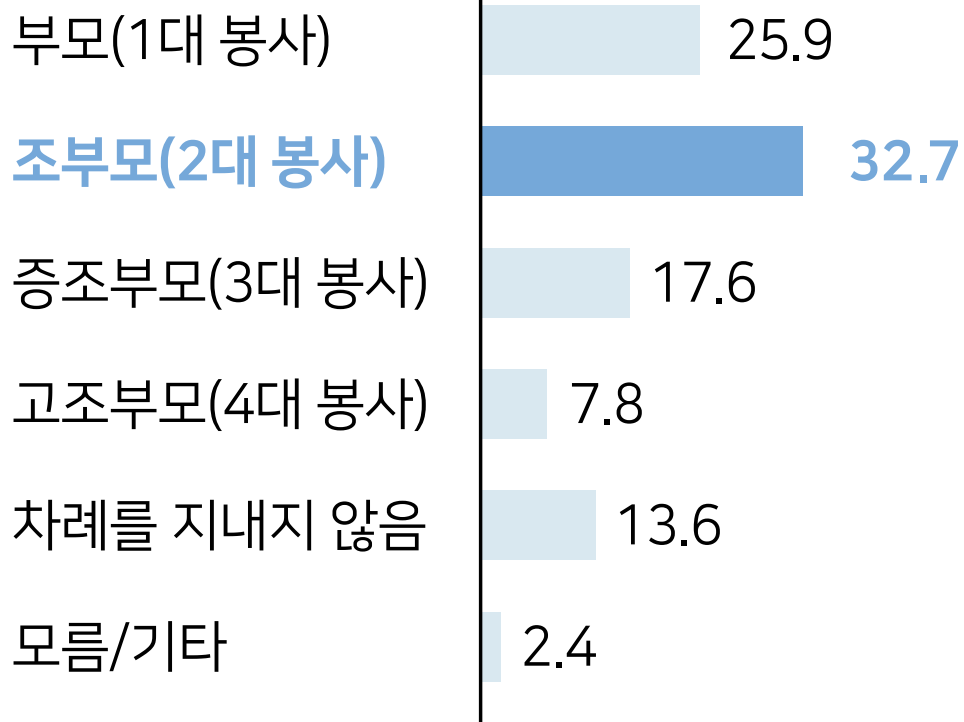
차례 개선점 : 간소화!

- 차례를 지낼 때 가장 개선해야 할 점으로 10명 중 4명이 ‘간소화’를 꼽았습니다.
- ‘간소화’를 꼽은 응답은 △남성(37.6%)보다 △여성(43.7%)이 많았고, 20대에서는 △남녀 공동 참여(35.0%)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Q

귀하의 집안에서는 차례를 몇 대까지
지내고 계십니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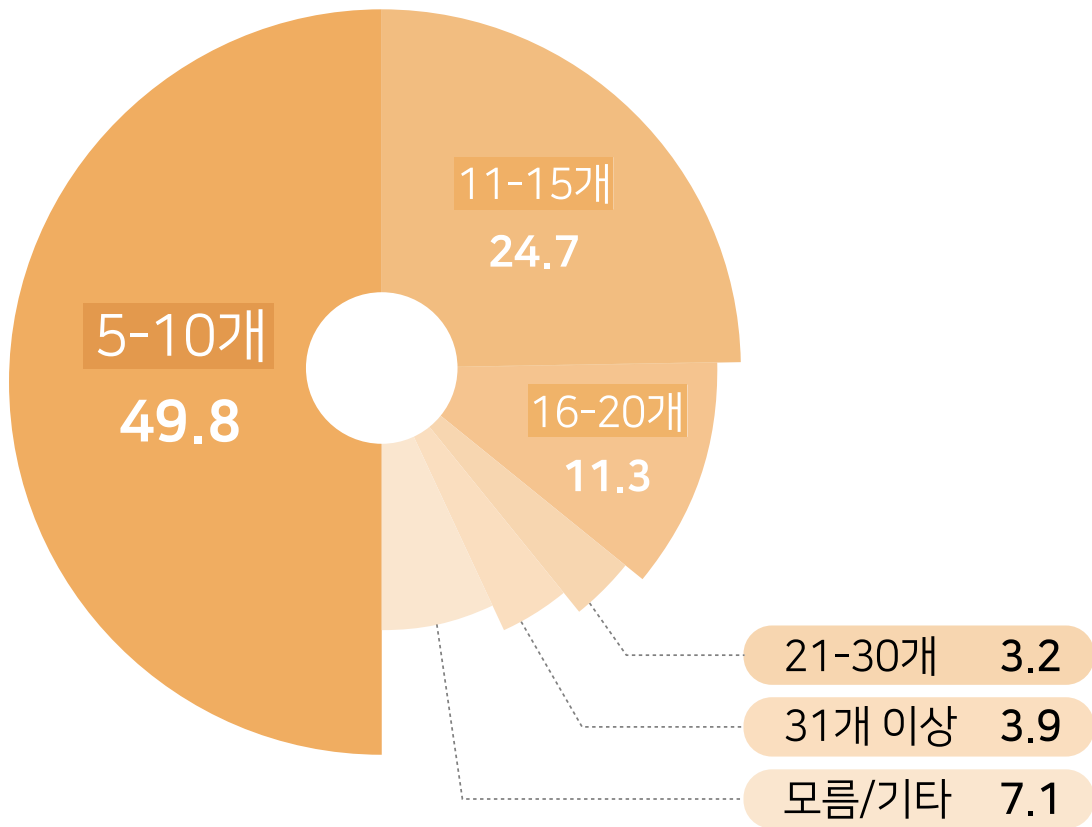
차례 지낼 때 모시는 조상 :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 차례 지낼 때 모시는 조상의 범위는 △조부모/2대(32.7%) △부모/1대(25.9%)를 선택한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Q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은 몇 가지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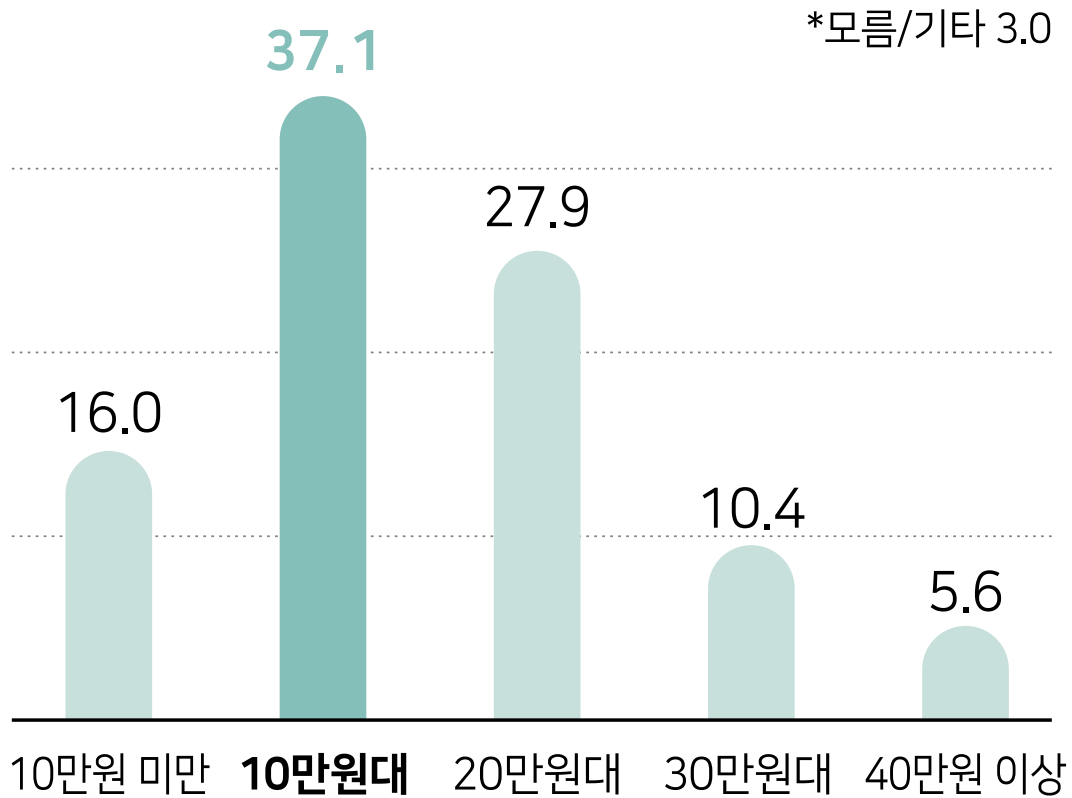
차례 음식 가짓수 : 많은 음식은 이제 안녕!

- 응답자 2명 중 1명이 차례 음식의 적당한 수로 5~10가지를 선택했습니다.
- 특히 차례의 개선점을 묻는 질문에서 '간소화'를 1순위로 꼽은 응답층의 82.3%가 '5~15가지'를 꼽았습니다. 이로 볼 때 차례 간소화의 핵심이 곧 음식의 가짓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차례를 지낼 때, 가장 적당한 비용은 얼마
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차례 비용 : 10~20만 원으로 해결합시다!

- 가장 적당한 차례 비용으로는 ‘10만 원대’를 가장 많이 선호했습니다.
- ‘20만 원대’로 응답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응답 비율은 81%에 이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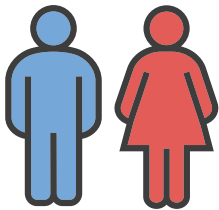
Q

양가 모두 차례를 지낼 경우 귀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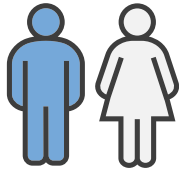
양가 모두
참석

51.8



본가만
참석

33.0



처가만
참석

2.5



양가 모두
불참

8.1



모름/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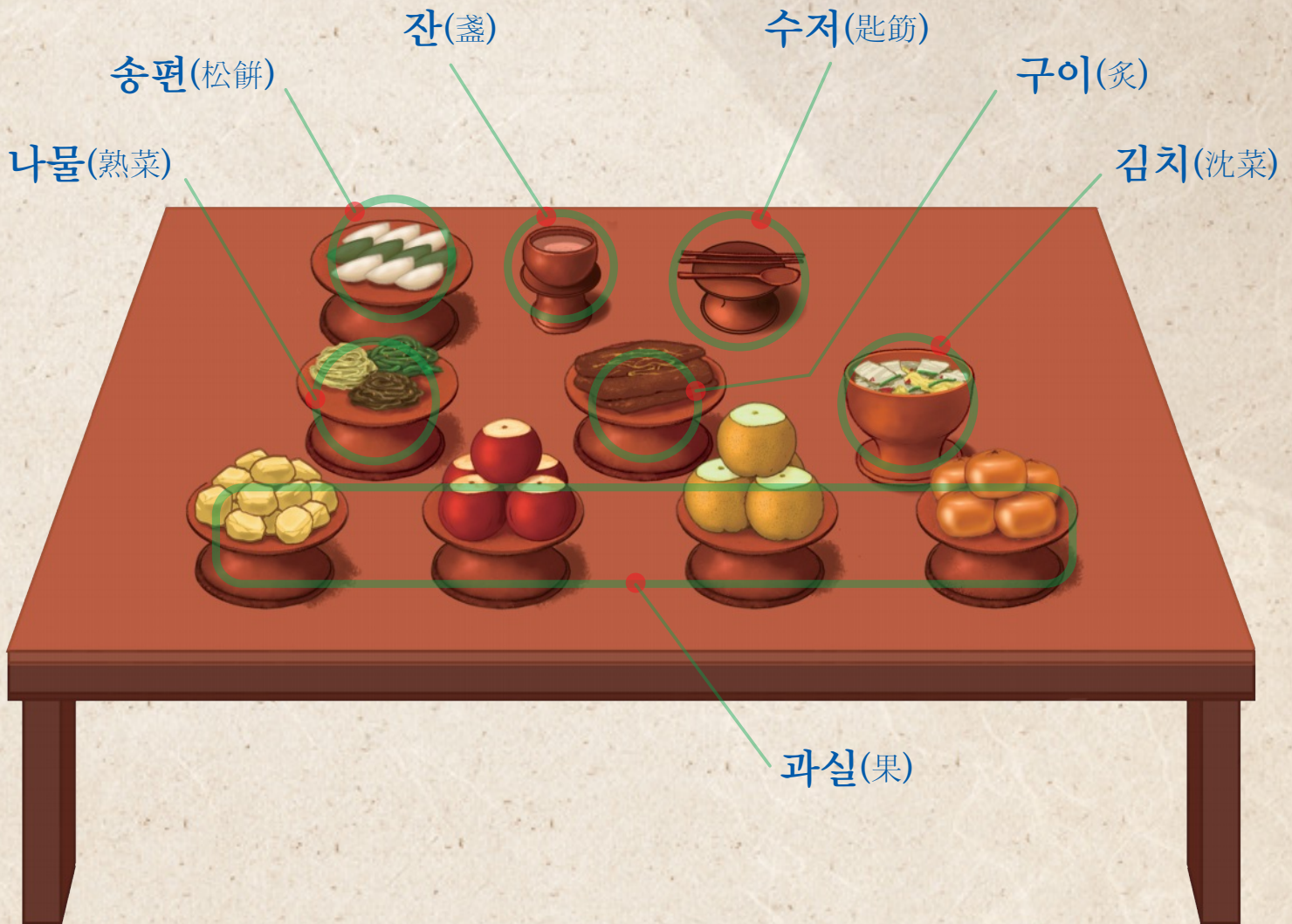
4.7



차례를 지낼 경우 참석의향 : 양가 모두 참석

- 양가 모두 차례를 지낼 경우, 2명 중 1명은 양가 차례에 모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 남자 쪽 집 차례에만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은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가부장제 문화’가 강한 노년층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양가에 모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은 △30대(58.0%) △20대(57.1%) △50대 (55.8%) △40대(53.3%) △60대(46.3%) △70대 이상(37.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차례상 표준안 진설도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가 마련한
차례상 표준안입니다. 설문 조사 결과,
예법 등을 두루 고려하여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차례상 차림의 기본은 이것!

추석 차례상의 기본은 송편, 나물, 구이(炙), 김치, 과일, 술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올린다면 육류, 생선, 떡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가족들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예의 근본정신을 다룬 유학 경전 『예기(禮記)』의 「악기(樂記)」에 따르면 큰 예법은 간략해야 한다(大禮必簡)고 합니다.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음식의 가짓수에 있지 않으니 많이 차리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위(神位) : 사진과 지방

사당이 없는 일반 가정에서는 지방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으나, 사진을 두고 제사를 지내도 괜찮습니다.



과일 놓는 방법

예법을 다룬 문헌에 ‘홍동백서’나 ‘조율이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편하게 놓으면 됩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은 차례상에 꼭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전을 부치느라 고생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셔도 됩니다.



성묘는 언제 할 것인가?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는 집도 있고, 차례를 지내지 않고 바로 성묘하는 집도 있습니다. 가족이 논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설문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 뷰’가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 20세 이상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하여 진행했습니다.